

아버지의 일-가정 양립 군집 유형에 따른 결혼만족도, 부부갈등 및 양육스트레스

김연하¹⁾ 장욱²⁾ 서홍우³⁾

요약

본 연구는 한국아동패널 8차년도 자료의 만 7세 자녀를 둔 1,376명의 아버지자료를 활용하여, 일-가정 양립에 대한 갈등 및 이점 지각에 따라 아버지들을 유형화하였다. 또한 군집에 따라 아버지의 결혼만족도, 부부갈등, 양육 스트레스에 차이가 있는지 살펴보았다. 그 결과, 아버지들은 갈등이 낮고 이점이 높은 '이점우세 집단', 갈등과 이점 지각이 모두 높은 '양가 집단', 갈등과 이점 지각이 모두 낮은 '양비 집단', 갈등이 높고 이점이 낮은 '갈등우세 집단'으로 유형화되었다. 또한 이점우세 집단의 결혼만족도가 가장 높고, 부부갈등 및 양육스트레스가 가장 낮았다. 반면에 갈등우세 집단의 결혼만족도는 가장 낮고, 부부갈등 및 양육스트레스 가장 높았다. 이는 아버지들이 일-가정의 양립의 이점에 초점을 둘수록 결혼 및 양육관련 심리적 태도가 양호함을 의미한다. 본 연구의 결과는 아버지들이 일-가정 양립을 보다 이롭게 지각할 수 있도록 사회적 인식 개선과 제도적 방안이 모색해야 함을 시사한다.

주제어: 아버지 일-가정 양립, 결혼만족도, 부부갈등, 양육스트레스, 군집분석

I. 서론

일과 가정의 양립이란 '개인의 일과 삶이 균형을 이룬 상태'를 의미하며, 여기서 '균형' 상태를 만들어 나가는 것은 개인과 가족 모두의 건강과 복지에 핵심이라고 할 수 있다 (OECD, 2011). 일-가정 양립 연구 초기에는 기혼 여성의 일-가정 양립에 주목하였는데 (김경륜, 2014; 이진숙·최원석, 2012; 손영미, 2015) 이는 어머니의 주요 역할이 가정을

1) 경희대학교 아동가족학과 부교수
 2) 경희대학교 아동가족학과 석사과정
 3) 경희대학교 아동가족학과 석사과정

돌보고 자녀를 양육하는 것이기 때문에 일과의 병행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에 기반한 것이었다. 그러나 맞벌이 가구가 보편화되면서 부부 역할분담이 크게 변화되었고, 남성에게도 가사노동과 자녀양육의 책임이 점차로 강조되고 있다. 통계청(2019) 생활시간조사에 따르면 1999년에서 2014년까지 여성의 일평균 가사노동시간은 160분에서 151분으로 줄어든 반면, 남성은 36분에서 53분으로 증가하였다. 아직까지 어머니들의 가사노동 시간이 압도적으로 많기는 하지만 아버지들의 가사 및 양육 참여가 늘어나고 있음은 확실하다. 따라서 일-가정의 양립의 문제는 더 이상 어머니에 국한된 것이 아닌 아버지에게도 중요한 이슈라고 볼 수 있다.

아버지들에게도 일과 가정을 병행한다는 것은 두 개의 역할을 동시에 수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역할 충돌이 일어난다. 현 시점에서 우리나라의 아버지들이 일과 양육을 병행하면서 단점과 이점을 과연 어떻게 지각하고 있는지 파악하는 것은 우리나라 아버지들에 대한 이해 수준을 높이고, 기혼 남성들을 위한 가족 친화 정책 수립에 반드시 필요한 일이다.

기존의 일-가정의 양립 관계를 설명하는 대표적인 이론은 전이모델(Spillover Model)(Grzywacz & Marks, 2000)이다. 전이모델은 비록 일과 가정 두 영역이 서로 독립된 영역이지만 일과 가정 간에 높은 관련성이 존재하며, 한 영역에서의 긍정적, 혹은 부정적 경험이 다른 영역에서의 긍정적 혹은 부정적 경험으로 이어지는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설명한다. 전이모델은 오랫동안 일-가정 간 갈등 및 이점의 연속성을 설명하는 이론적 토대가 되어 왔으나, 일-가정 양립의 유형을 지나치게 이분법적으로 단순하게 만들어서, 개인이 지각하는 갈등과 이점의 고유한 균형점을 포괄적으로 설명하지 못한다는 한계가 있다.

한편, 경계이론(Border theory)(Clark, 2000)은 훨씬 역동적으로 일-가정 양립을 설명하였다. 경계이론에 따르면, 개인은 일과 가정이라는 서로 다른 목적과 문화를 가진 두 영역의 경계를 매일 오가며 생활하고, 일과 가정을 병행하면서 마주치는 여러 요소들을 적절하게 관리하고 협상하면서 자신만의 균형을 찾아가는 존재이다. 경계이론의 관점에 따르면, 개인이 일과 가정을 병행하면서 갈등만을 지각한다거나 이점만을 지각하지는 않으며, 갈등과 이점이 만나는 고유한 타협점을 일-가정 양립의 균형점으로 지각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아버지의 일-가정 양립을 연구하려면 아버지가 지각하는 갈등 또는 이점만을 따로 파악하기 보다는 아버지가 일-가정을 양립하면서 갈등과 이점을 어느 정도 지각하는지 동시에 파악하고, 갈등과 이점이 서로 만나는 지점은 어디인지 살펴보는 것이 필요하다. 우리나라에서 아버지의 일-가정 양립 시 갈등 및 이점 지각의 균형점을 유형화하려는 시도는 아직까지 없었다. 다만 이승미와 구혜령(2013)이 기혼 취업여성의 일-가정 상호작용 유형을 긍정적인 측면인 향상(enhancement)과 부정적인 측면인 갈등(conflict)을 두 축으

로 하여 총 4개의 군집으로 분류하였다. 이승미와 구혜령(2013)은 향상과 갈등이 모두 높은 집단은 전반적 우위형, 향상이 높고 갈등이 낮은 집단은 일-가정 향상형, 향상이 낮고 갈등이 높은 집단은 일-가정 갈등형, 향상과 갈등이 모두 낮은 집단은 전반적 열위형으로 명명하였다. 일-가정 상호작용 각 군집은 서로 독립적인 인구학적 특성과 근무환경 특성을 가지고 있었다. 최근 김연하(2019)는 아동패널 8차년도 자료 중 취업모 694명의 자료를 활용하여 일-양육 양립에 대한 갈등과 이점 지각을 두 축으로 하여 총 4개의 군집으로 어머니들을 유형화 하였다. 어머니들은 각각 이점 우세집단(32.4%), 모두 높음 집단(26.8%), 갈등 우세집단(26.7%), 모두 낮음 집단(32.4%)로 유형화되었으며, 각 유형에 따라 양육스트레스, 온정적 양육행동, 모-자녀 상호작용에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이에, 본 연구는 이승미와 구혜령(2013), 김연하(2019)의 선행연구에 의거하여 아버지들도 일-가정 양립에 대한 갈등 및 이점 지각을 두 축으로 하여 4개의 군집으로 유형화 할 수 있는지 파악해 보고자 한다.

한편, 아버지의 일-가정 양립 연구는 주로 직무만족도(최수찬·우종민·박웅섭 외, 2009; 이병재·정태석, 2013; 정만해, 2016), 직무몰입(손영빈·최은영, 2009), 이직의도(지혜정·김주엽·박상언, 2010; 이선경·이춘우·김상순, 2014)와 같은 직장관련 변인과 함께 연구되었다. 아버지들에게 일-가정 양립을 통해 직장에서 잘 적응하고 오랫동안 근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성공적으로 결혼생활을 유지하고 자녀를 잘 양육하는 것도 중요하다. 이러한 관점에서 우리나라 아버지들의 일-가정 양립과 관련된 지각과 판단이 결혼 및 양육관련 심리적 변인들과 어떠한 관련성이 있는지 조금 더 살펴볼 필요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아버지의 결혼만족도, 부부갈등, 양육스트레스를 결혼 및 양육관련 심리적 변인으로 설정하고, 아버지의 일-가정 양립 시 갈등 및 이점 지각에 따른 군집유형에 따라 각 변인에 유의한 차이가 있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결혼만족도는 결혼생활 전반에 대한 개인의 주관적 평가를 의미하며, 부부관계, 개인의 정신건강, 나아가 부모역할에도 영향을 준다. 기존의 연구를 살펴보면 남성뿐만 아니라 여성 모두 일-가정 양립 시 갈등 지각 수준이 높을수록 결혼만족도가 낮다는 연구결과(김소정, 2016)가 보고되고 있다. 또한 직장 여성의 일-가정 갈등은 결혼만족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박정열·신종화·신규리, 2015) 반면 기혼 남성의 일-가정 양립 이점은 결혼만족도에 정적 영향을 주었다(서종수, 2019).

부부갈등은 결혼생활 속에서 공동의 목표를 달성하거나 갈등을 해결할 때, 부부간에 주고받는 부정적인 언어/비언어적 상호작용을 의미한다. 부부갈등은 결혼만족도와 마찬가지로 개인의 삶의 질, 부모역할 및 자녀의 발달에도 중요한 역할을 한다. 기존연구에 따르면 부부갈등은 기혼 직장인들의 가족-일 갈등의 주요원인이며 가족-일 갈등에 직접영향을 미

친다(이은희, 2000)고 하였다. 또한 남성의 일-가정이 불균형할수록 부정적인 부부관계가 초래되고 부부갈등이 높아진다(김진옥·박은영, 2018)는 결과도 보고되고 있다.

양육스트레스란 자녀를 양육하고 자녀와 상호작용하는 과정에서 부모가 경험하게 되는 스트레스이다. 아버지의 양육스트레스 또한 아버지의 양육행동에 영향을 주고 자녀의 발달에 의미 있는 차이를 가져오는 중요한 요인이라고 할 수 있다. 일-가정 양립 시 갈등 지각이 높을수록 취업모의 양육스트레스가 높게 나타나고(박주희, 2015) 아버지도 공동양육자로서 갈등 지각 수준이 높을수록 양육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다(하문선, 2018). 또한 아버지가 일과 가정의 균형을 유지하는 과정에서 느끼는 갈등과 어려움이 많을수록 아버지의 양육스트레스가 높게 나타나는 결과(김희영·유효인, 2019)가 보고되고 있다.

이러한 선행연구들을 살펴보면 대체적으로 일-가정 양립 시 아버지의 높은 갈등 지각은 낮은 결혼만족도, 높은 부부갈등, 높은 양육스트레스와 관련이 있고, 아버지의 높은 이점 지각은 높은 결혼만족도, 낮은 부부갈등, 낮은 양육스트레스와 관련이 있을 것으로 예측된다. 그러나 이러한 결과들은 일-가정 양립에 대한 갈등 혹은 이점의 지각을 분리된 요인으로 종속 혹은 독립변인에 투입한 결과분석에 기초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시도하는 갈등 및 이점 지각의 다양한 균형점에 따라 아버지들의 결혼 및 양육관련 심리적 변인에 어떠한 차이가 있는가는 아직 연구되지 않았다. 본 연구를 통해, 결혼 및 양육에 가장 바람직한 아버지가 지각하는 일-가정 양립의 균형점은 무엇인지 파악해 보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 1) 아버지의 일-가정 양립 시 갈등 및 이점에 따른 군집 유형은 어떠한가?
- 2) 아버지 일-가정 양립 시 군집 유형에 따른 결혼만족도, 부부갈등, 양육스트레스의 차이는 어떠한가?

II.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는 2015년도에 수집된 한국아동패널(PSKC)의 8차년도 자료를 사용하였다. 2008년부터 총 2,150명을 연구대상으로 하여 2015년까지 유지되고 있는 1,467명에서 아버지가 현재 재직 중(취업/학업 병행 중 포함)인 1,376(64%)명을 최종 연구대상으로 선정

하였다. 즉, 본 연구의 대상은 만 7세 자녀를 둔 현재 직장에 다니고 있는 아버지 1,376명이다.

연구대상의 일반적 특성은 <표 1>과 같다. 아버지의 평균 연령은 40.27세이며, 최종학력을 보면 전문대졸이상인 1,023명으로 전체의 74.3%이었다. 가구 월 소득은 최저 28만에서 2,000만까지로 분포되었고 가구 평균 월 소득은 4,676.03만 원이었다. 아동패널연구의 대상이 되는 자녀의 성별은 남자는 51.24%이며, 조사 당시 자녀의 평균 월령은 87.91개월이었다. 총 자녀수는 최소 1명 최대 5명이었으며 평균 자녀수는 2.19명이었다. 어머니가 취업 중(취업/학업 병행 중 포함)인 경우는 629(45.7%)명이었다.

<표 1> 연구대상의 일반적 특성 (N=1376)

구분	F(%)	M(SD)	군집 유형별차이
아동패널 참여 자녀성별	남자 705(51.24)		-
아동패널 참여 자녀월령		87.91(1.55)	-
총 자녀수		2.19(.67)	-
어머니 취업	629(45.7)		-
아버지 연령		40.27(3.92)	-
아버지 최종학력	고등학교 졸업 및 이하	353(25.7)	$\chi^2(3, N=1376) = 22.773^{***}$
	전문대 졸업이상	1023(74.3)	
가구 월소득		467.03(198.18)	$F_{(1361,3)} = 7.974^{***}$

*** $p < .001$

2. 연구도구

가. 아버지 일-가정 양립 갈등 및 이점

아버지의 일-가정 양립은 Marshall과 Barnett(1993)이 제작한 문항을 한국아동패널 연구진이 번역한 척도를 사용하여 측정되었다. 본 척도는 일-가족 갈등(9문항), 일-가족 이점(7문항), 일-양육 갈등(6문항), 일-양육 이점(4문항) 총 26문항으로 Likert 5점 척도로 구성되었다. 점수가 높을수록 일-가정 양립에서 갈등 또는 이점을 많이 느끼는 것을 의미한다.

다. 일-가족 갈등의 신뢰도 계수(Cronbach's α)는 .877, 이점은 .933이고 일-양육 갈등의 신뢰도 계수(Cronbach's α)는 .841, 이점은 .863이다. 본 척도의 전체 신뢰도 계수(Cronbach's α)는 .793이다.

본 연구에서는 일-가족 갈등과 일-양육 갈등의 점수를 합산하여 일-가정 갈등으로, 일-가족 이점과 일-양육 이점의 점수를 합산하여 일-가정 이점으로 분석하였다. 일-가정 갈등의 신뢰도(Cronbach's α)는 .911, 일-가정 이점의 신뢰도(Cronbach's α)는 .913이다.

나. 결혼만족도

아버지 결혼만족도 척도는 Schumm, Nichols와 Schectman et al.(1983)의 Kansas Marital Satisfaction Scale(KMSS)을 Chung(2004)이 한국 문화에 맞게 수정한 Revised-Kansas Marital Satisfaction Scale(RKMSS)를 사용하여 측정되었다. 총 4개 문항으로 구성된 결혼만족도 척도는 5점 Likert 방식으로 측정하고 점수가 높을수록 아버지가 지각하는 결혼만족도 정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신뢰도 계수(Cronbach's α)는 .941로 나타났다.

다. 부부갈등

아버지의 부부갈등을 측정하기 위하여 Markman, Stanley와 Blumberg(1994)가 제작한 부부갈등 척도를 정현숙(2004)이 수정 번안한 척도를 사용하였다. 8개 문항으로 구성된 부부갈등 척도는 5점 Likert 방식으로 측정하고 점수가 높을수록 부부가 지각하는 갈등수준이 높음을 의미한다. 본 척도의 신뢰도 계수(Cronbach's α)는 .916이었다.

라. 양육스트레스

본 연구에서 사용한 양육스트레스 척도는 김기현과 강희경(1997)이 개발한 양육스트레스 척도 중 부모역할 수행에 대한 부담감 및 디스트레스를 발췌하여 한국아동패널 연구진들이 수정한 척도이다. 11개 문항으로 구성된 양육스트레스 척도는 5점 Likert 방식으로 측정하고 점수가 높을수록 부모역할에 대한 부담감 및 디스트레스가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 신뢰도 계수(Cronbach's α)는 .888로 나타났다.

3. 분석방법

본 연구는 SPSS 23.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분석하였다.

첫째, 연구대상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을 알아보기 위하여 기술통계분석을 실시하고 측정 도구의 신뢰도를 검증하기 위하여 Cronbach's α 를 산출하였다. 둘째, 아버지의 일-가정 양립 군집 유형을 구분하기 위하여, 갈등과 이점 점수를 Z점수로 변화하였으며, 4집단으로 K-평균 군집분석을 실시하였다. 이는 앞서 언급하였던 이승미와 구혜령(2013), 김연하(2019)의 선행연구에 근거하여 아버지의 일-가정 양립을 아버지가 지각하는 갈등과 이점을 두 축으로 하여 4개의 군집으로 유형화 될 수 있는지 파악하기 위함이다. 마지막으로 아버지의 일-가정 양립 군집 유형별로 결혼만족도, 부부갈등, 양육스트레스간의 차이를 검증하기 위하여 아버지의 연령, 아버지 최종학력, 어머니 취업상태, 가구 월 소득을 공변인으로 투입하여 공변량 분석을 실시하였다. 이러한 주요 인구학적 변인들은 기존 선행연구에서 결혼 및 양육관련 심리적 변인들과 유의미한 관련이 있다고 밝혀진 요인들이다(김소정, 2016; 조운주·한준아·김지현, 2012). 또한 집단 간 차이를 파악하기 위하여 Bonferroni 사후검증을 하였다.

III. 연구결과

1. 아버지의 일-가정 양립 시 갈등과 이점에 따른 군집

아버지의 일-가정 양립 시 갈등과 이점 지각을 두 변인으로 하여 K-평균 군집분석을 실시한 결과, 아버지의 일-가정 양립 지각에 대한 군집과 그 평균은 <표 2>와 같다. 분산분석 결과 각 군집의 갈등($F_{(3, 1372)} = 891.55, p < .001$) 및 이점($F_{(3, 1372)} = 960.82, p < .001$) 평균 차이가 통계적으로도 유의하게 나타났다. <그림 1>에 나타난 것처럼 군집중심이 서로 멀리 떨어져 있어서 군집들이 서로 독립적인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갈등과 이점이 모두 높게 나타나는 A집단은 '양가 집단'(416명), 갈등이 낮고 이점이 높은 B집단은 '이점우세 집단'(417명), 갈등이 높게 나타나고 이점이 낮은 C집단은 '갈등우세 집단'(282명), 갈등과 이점이 모두 낮은 D집단은 '양비 집단'(261명)으로 명명하였다.

연구대상자 특성이 군집변인에 따라 차이가 있는지 검증하였다(<표 1>). 그 결과 아버지의 최종학력과 가구 월소득에서 군집유형별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차분석 결과,

아버지의 최종학력은 군집유형과 관련이 있었다($X^2(3, N=1376) = 22.773, p < .001$). 양가 집단과 이점 우세 집단의 경우 대출 이상이 기대빈도 보다 더 높게 분포되어 있고, 고졸 이하가 기대 빈도보다 더 낮게 분포되어 있었다. 반대로, 갈등우세 집단과 양비 집단은 고졸 이하가 기대빈도 보다 더 높게 분포되어 있었고, 대출 이상은 기대빈도 보다 더 낮게 분포되어 있었다. 가구의 월 소득은 갈등 집단의 월소득이 양가 집단과 이점 우세 집단의 월 소득에 비하여 유의하게 낮았다($F_{(1361,3)} = 7.974^{***}, p < .001$).

〈표 2〉 아버지 일-가정 양립시 갈등 및 이점에 따른 4가지 군집유형의 중심(Z점수)

	양가 집단	이점우세 집단	갈등우세 집단	양비 집단	F
이점	.316	.939	-1.142	-.771	$F_{(3,1372)} = 891.55^{***}$
갈등	.575	-.927	1.071	-.589	$F_{(3,1372)} = 960.82^{***}$
N(%)	416 (30.90)	417 (30.31)	282 (20.49)	261 (18.97)	

*** $p < .001$

〈그림 1〉 아버지의 일-가정 양립 갈등 및 이점에 따른 군집유형의 중심



2. 아버지의 일-가정 양립 균집 유형에 따른 결혼만족도, 부부갈등, 양육스트레스

먼저, 아버지 연령, 아버지 최종학력, 어머니 취업상태, 가구 월 소득을 통제한 상태에서 아버지의 일-가정 양립 균집 유형에 따른 양육관련 심리적 변인의 차이를 살펴본 결과 <표 3>과 같다. 아버지의 결혼만족도($F_{(3, 1351)} = 40.385, p < .001$), 아버지의 부부갈등($F_{(3, 1351)} = 70.852, p < .001$), 아버지의 양육스트레스($F_{(3, 1351)} = 122.459, p < .001$)에서 일-가정 양립 균집 유형의 주효과가 유의하였다.

<표 3> 일-가정 양립 균집 유형에 따른 결혼 및 양육관련 심리적 변인의 차이

종속 변수	변량원	제곱합	자유도	평균제곱	F	부분에타 제곱
결혼 만족도	아버지 연령	5.939	1	5.939	.816	.001
	아버지 최종학력	40.259	1	40.259	5.531*	.004
	어머니 취업상태	.113	1	.113	.016	.000
	가구 월 소득	30.204	1	30.204	4.149*	.003
	일-가정 양립 유형	881.893	3	293.964	40.385***	.082
	오차	9834.054	1351	7.279		
	합계	10919.423	1358			
부부 갈등	아버지 연령	82.887	1	82.887	2.846	.002
	아버지 최종학력	2.119	1	2.119	.073	.000
	어머니 취업상태	13.163	1	13.163	.452	.000
	가구 월 소득	4.941	1	4.941	.170	.000
	일-가정 양립 유형	6191.185	3	2063.728	70.852***	.136
	오차	39350.976	1351	29.127		
	합계	45792.929	1358			
양육 스트 레스	아버지 연령	53.677	1	53.677	1.521	.001
	아버지 최종학력	179.442	1	179.442	5.084*	.004
	어머니 취업상태	7.195	1	7.195	.204	.000
	가구 월 소득	621.733	1	621.733	17.615***	.013
	일-가정 양립 유형	12966.871	3	4322.290	122.459***	.214
	오차	47684.606	1351	35.296		
	합계	62862.464	1358			

* $p < .05$, *** $p < .001$

Bonferroni 사후검증 결과 <표 4>, 결혼만족도는 갈등이 낮고 이점이 높은 '이점우세 집단'이 가장 높고, 갈등과 이점이 모두 높은 '양가 집단'이 두 번째, 갈등과 이점이 모두 낮은 '양비 집단'이 세 번째로 높았다. 갈등이 높고 이점이 낮은 '갈등우세 집단'의 결혼만족도가 가장 낮았다.

부부갈등과 양육스트레스는 이점이 낮고 갈등이 높은 '갈등우세 집단'의 부부갈등이 제일 높았고, 갈등과 이점이 모두 높은 '양가 집단'과 갈등과 이점이 모두 낮은 '양비 집단'이 그 다음으로 높았다. 이점이 높고 갈등이 낮은 '이점우세 집단'이 가장 낮았다.

<표 4> 일-가정 양립 갈등과 이점 유형에 따른 결혼 및 양육관련 심리적 변인의 차이 사후검증

종속변수	일-가정 양립 군집 유형	N	M(SE)	F	Bonferroni
결혼만족도	양가 집단(A)	416	16.212 (.133)	40.385***	C<D<A<B
	이점우세 집단(B)	417	17.145 (.133)		
	갈등우세 집단(C)	282	14.876 (.163)		
	양비 집단(D)	261	15.735 (1.69)		
부부갈등	양가 집단(A)	416	16.596 (.267)	70.852***	B<D=A<C
	이점우세 집단(B)	417	13.573 (.267)		
	갈등우세 집단(C)	282	19.706 (.327)		
	양비 집단(D)	261	16.451 (.339)		
양육스트레스	양가 집단(A)	416	24.766 (.293)	122.459***	B<D=A<C
	이점우세 집단(B)	417	19.888 (.294)		
	갈등우세 집단(C)	282	28.636 (.360)		
	양비 집단(D)	261	24.456 (.373)		

*** $p < .001$

IV. 논의 및 결론

본 연구는 한국 아동패널연구의 자료를 활용하여 일과 가정을 양립하는 만 7세 자녀를 둔 아버지들이 지각하는 갈등과 이점을 바탕으로 아버지들을 4개의 군집으로 유형화하였다. 또한 공변량 분석을 통해 아버지 연령, 아버지 최종학력, 어머니 취업상태, 가구 월소득을 통제하고 군집 유형에 따른 아버지의 결혼만족도, 부부갈등, 양육스트레스간의 차이를 알아보았다. 연구결과를 논의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일과 가정을 양립하는 아버지들의 갈등 및 이점 지각을 유형화 해보면, 갈등이 낮고 이점이 높은 '이점우세 집단'이 417명(30.31%)으로 제일 많았다. 갈등과 이점이 모두 높게 나타나는 '양가 집단'은 416명(30.23%), 갈등이 높고 이점이 낮은 '갈등우세 집단'은 282명(20.49%), 갈등과 이점이 모두 낮은 '양비 집단'은 261명(18.97%)으로 제일 적었다. 미취학 자녀를 둔 기혼 취업여성의 일-가정 상호작용을 4개 집단으로 군집화한 이승미와 구혜령(2013)의 연구에서는 갈등이 낮고 이점이 높은 집단은 18.9%에 불과하였고, 갈등과 이점이 모두 높은 집단이 3분의 1 이상(33.8%)이었다. 반면, 일-양육 양육 양립에 대한 갈등과 이점 지각을 바탕으로 어머니들을 유형화한 김연하(2019)의 연구에서는 이점 우세 집단(32.4%), 모두 낮음 집단(32.4%), 모두 높음 집단(26.8%), 갈등 우세집단(26.7)의 순이었다.

이 세 연구는 각각 연구 대상이 다르고(초등입학기의 아버지, 미취학 자녀를 둔 어머니, 초등입학기의 어머니), 군집의 기준이 되는 요인(일-가정 양립, 일-가정 상호작용, 일-양육 양립)이 상이하기 때문에 유형의 사례수 크기를 단순 비교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 본 연구에서 나타난 바에 따르면, 일과 가정의 양립 시 이점에 조금 더 중점을 둔 판단을 하거나, 갈등이 높더라도 이점 역시 높게 지각하는 아버지들이 60%를 넘었다. 이는 기혼 직장남성들에게 직장은 선택이라기보다는 가족을 부양하기 위한 필요조건이며, 일-가정의 양립을 당연하고 긍정적으로 인식하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된다. 그러나 성역할에 대한 급격한 인식변화가 현재도 진행 중이고, 결혼과 부양에 대한 역할분담에 대한 지각도 빠르게 변화하고 있으므로, 후속 연구를 통해 일과 가정의 양립이 삶에 주는 의미지각에 대한 남-녀 간 차이를 지속적으로 탐색해 볼 필요가 있다.

둘째, 일-가정 양립 시 이점 및 갈등 지각 군집 유형에 따른 결혼만족도를 보면 '이점우세 집단'이 가장 높고, '갈등우세 집단'이 가장 낮았다. 이는 갈등에 치우친 균형점 보다는 이점에 치우친 균형점을 가진 아버지들이 결혼만족도가 높다는 것을 시사한다. 한편, 갈등과 이점이 모두 높은 '양가 집단'과 갈등과 이점이 모두 낮은 '양비 집단'의 결혼만족도 차

이도 유의하였다. 갈등과 이점 지각이 모두 높은 아버지들보다 갈등과 이점이 모두 낮은 아버지들의 결혼의 결혼 만족도가 더 낮았다. 즉, 갈등을 비록 높게 지각할 지라도 이점도 높게 지각하는 아버지들의 결혼만족도가 더 높다는 것이다. 이는 갈등을 낮게 지각할수록 바람직한 결혼관련 심리적 결과가 나타날 것이라는 일-가정 양립 갈등중심 입장(김소정, 2016; 박정열·신종화·신규리, 2015)보다는 일-가정 양립의 이점 지각이 결혼관련 심리적 요인과 정적인 관계가 있다(서종수, 2019)는 입장에 조금 더 부합하는 결과이다.

부부갈등과 양육스트레스의 군집 유형 간 평균차이를 살펴보면 '갈등우세 집단'이 제일 높았고, '이점우세 집단'이 가장 낮았다. 이는 아버지가 일-가정 양립 시 갈등을 이점보다 높게 지각하면 부부갈등과 양육스트레스가 더 높아지고 이점을 갈등보다 높게 지각하면 부부갈등과 양육스트레스도 낮아지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부부갈등 또는 양육스트레스가 일-가정 갈등과 정적 관련이 있음을 보고한 기존의 연구들(김진욱·박은영, 2018; 하문선, 2018)과 같은 맥락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갈등과 이점이 모두 높은 '양가 집단'과 갈등과 이점이 모두 낮은 '양비 집단'은 서로 차이가 없었다. 이는 결혼만족도와는 달리 부부갈등과 양육스트레스의 경우, 이점 지각이 높은 갈등 지각이 종속변인에 주는 영향력을 상쇄해 주지는 않고 있음을 시사한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종합하면, 결혼 및 양육과 관련하여 가장 바람직한 일-가정 양립 지각 군집유형은 '이점 우세'형으로 파악된다. '이점 우세'형 아버지들은 다른 군집 유형에 비해 높은 결혼만족도와 낮은 부부갈등 및 낮은 양육스트레스를 보고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일과 가정을 병행하는 것을 자신, 사회, 가족, 자녀 모두에게 도움이 된다는 지각이 강한 아버지들일수록 가정 내에서 남편으로서 아버지로서 훨씬 더 성공적으로 기능하고 행동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

한편, 갈등과 이점을 모두 높게 지각하는 아버지들(양가집단)과 갈등과 이점을 모두 낮게 지각하는 아버지들(양비집단)도 있었는데, 이들은 '이점우세' 집단보다는 덜 바람직하지만 '갈등우세' 집단보다는 조금 더 양호한 심리적 특징을 가지고 있었다. 이러한 아버지들은 일과 가정 사이에서 역할 혼돈을 겪고 있거나, 일과 가정 모두에 낮은 수준의 관심을 가지고 있는 아버지들일 수 있다.

반면 '갈등 우세'형 아버지들이 가장 바람직하지 못한 결혼만족도, 부부갈등, 양육스트레스의 양상을 가지고 있었다. 이러한 아버지들은 일과 가정의 양립에 회의적이며, 이점보다는 갈등에 초점을 둔 지각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앞서 연구결과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갈등 우세형 아버지들은 이점 우세나 양가 집단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낮은 가구 월소득을 유지하고 있으며, 학력에 있어서도 고졸이하가 기대빈도보다 높게 분포하고 있는 집단이

다. 이들의 이러한 갈등 우세형 지각이 단순히 일-가정 양립에서 비롯된 것인지 다른 외부적인 요소에 기인한 것인지 광범위한 탐색을 할 필요가 있으며, 과연 어떤 사회적, 정책적 도움이 이들의 갈등 지각을 낮추고 이점 지각을 높일 수 있는지 연구되어야 할 것이다.

본 연구의 제한점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는 한국아동패널에서 제공하는 패널 자료 중 2015년에 수집된 8차년도 자료를 사용하였기에 빠르게 변화하는 2019년 현재의 일-가정 양립의 상황과 인식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할 수 있다. 둘째, 본 연구는 모든 변인을 아버지의 자기보고에 의존하였다. 따라서 아버지의 실제 양육행동, 부부 간 실제 상호작용과 일-가정 양립 군집유형과의 관계를 실증적으로 확인하지 못한 한계가 존재한다. 셋째, 본 연구에서 사용한 양육스트레스 척도는 유아기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를 대상으로 개발된 것이므로, 척도의 항목이 초등학교 학부모의 양육스트레스를 적절하게 반영하지 못하였을 수 있다.

V. 정책적 제언 및 시사점

일-가정 양립은 중성적인 개념임에도 불구하고 아버지의 일-가정 양립에 대한 학문적 정책적 관심은 어머니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이 부족하였다. 본 연구는 국내 최초로 아버지의 일-가정 양립 시 이점 및 갈등지각을 바탕으로 하여 아버지들을 군집으로 유형화 하였으며, 결혼만족도, 부부갈등, 양육스트레스와의 관련성을 파악하여 어떠한 군집유형이 가장 바람직한 결혼 및 양육관련 심리적 태도를 가지고 있는지 파악하였다는데 그 의의가 있다.

본 연구를 통해 아버지가 일-가정 양립 시 갈등 이점을 어떻게 지각하는가에 따라 결혼 및 양육관련 심리적 기능이 달라질 수 있음이 확인되었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제안을 하고자 한다.

첫째, 본 연구의 결과, 이점 우세 군집의 아버지들이 결혼생활과 양육에 가장 바람직한 심리적 태도를 가지고 있었다. 이점 우세 아버지들은 바람직한 결혼 및 양육에 대한 심리적 태도를 바탕으로 실제로도 가정 내에서도 긍정적이고 기능적으로 행동할 것으로 예측된다. 따라서 '일과 가정의 양립을 당연하며, 자신과 가족에게 모두 긍정적인 것'에 대한 인식을 우리나라 아버지가 추구해야 하는 심리사회적 발달과업으로 간주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교육하고 홍보하는 것이 필요하다.

과거의 중년 남성의 발달과업이 이상적인 노동자 또는 사회적으로 성공한 사회인이었다면 이제는 일과 가정 모두에서 균형을 잘 이루고 이를 성공적으로 병행하는 사람으로 변화

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우리나라의 저출산 원인중 하나로 꼽히는 것이 바로 가부장적 가족 문화이다(백수진, 2009). 가정보다는 사회적·직업적 성취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아버지들의 지각은 자칫 가족과 양육을 걸림돌로 여기거나 가부장적·남성위주의 태도로 귀결될 수 있다. 이는 가정문화 선진화에 걸림돌이 되거나 및 추가 출산율에 부정적 영향을 준다. 남성들에게 일과 가정의 양립은 자신, 자녀, 가족, 사회 모두에게 이로운 것이며, 반드시 추구해야 할 과업임을 확산적으로 인식시켜서 가정문화의 평등화와 선진화를 가속화해야 한다.

이런 의미에서 가족친화제도를 모범적으로 운영하는 기업 및 공공기관에 대하여 여성가족부가 '가족친화인증'을 부여하는 것은 바람직한 시도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그 인증대상인 일정규모 이상의 기업 및 공공기관에 제한된 점, 인증획득의 효과가 이미지 제고나 구성원 삶의 질 향상으로 제시되어 있어 구체적이고 실질적이지 않은 점, 기혼 남성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이 제시되지 않은 점 등은 앞으로 개선해야 될 과제라고 볼 수 있다.

둘째, 본 연구에서 결혼 및 양육관련 심리적 변인이 가장 바람직하지 못한 군집유형은 갈등우세 군집 아버지들이었다. 이들은 다른 집단에 비해 교육수준이 낮고 가족 월수입이 낮은 특징이 있었다. 따라서 영세 자영업자, 중소기업 근로자, 제조업 종사자 등 비교적 사회경제적 지위가 낮은 아버지들을 구체적으로 겨냥한 일-가정 양립 정책이 시급하다.

그러나 앞서 밝혔듯이 우리나라의 일-가정 양립정책은 대기업과 공공기업 위주일 뿐 아니라 남성을 직접적 수혜자로 하는 경우가 극히 드물다. 우리나라의 일-가정 양립 지원제도는 남녀고용평등 및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에 의거하여 시행되고 있는데, 주로 모성보호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직접적으로 아버지를 대상으로 한 제도는 배우자 출산휴가 제도가 거의 유일하다. 물론 부모 모두 육아휴직제나 근로시간 단축제도 등 여러 제도가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지만, 어머니들이 대부분 이용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통계청(2018)의 2018 일-가정 양립지표에 따르면, 0-7세 자녀를 둔 가정의 육아 휴직 이용률은 아버지가 1.6%, 어머니가 38.3% 이다.

이러한 차원에서 북유럽처럼 아버지에게 의무적으로 육아휴직을 하도록 해야 한다는 최근의 제안은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그러나 이것도 일정 규모 이상의 기업이나 공공기관에서 먼저 실시될 가능성이 크다. 사회경제적 수준이 비교적 낮은 가정의 아버지들이 일과 가정에서의 역할을 동시에 수행하면서 이점을 더 많이 지각할 수 있도록 이들을 직접적인 수혜자로 하는 획기적인 정책과 제도를 개발하는 것이 시급하다.

참고문헌

- 김경륜(2014). 여성 사무직 근로자의 일-가정 양립과 주관적 건강상태에 관한 연구. *아시아 여성연구*, 53(1), 91-120.
- 김기현·강희경(1997). 양육스트레스 척도의 개발. *대한가정학회지*, 35(5), 141-150.
- 김소정(2016). 기혼 직장인들의 일가족갈등이 결혼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성 차이를 중심으로. *사회복지연구*, 47(2), 201-226.
- 김진욱·박은영(2018). 미취학자녀를 둔 기혼 남성의 일-가정 균형이 자녀-부부관계에 미치는 영향: 양육참여와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사회과학연구*, 25(1), 211-236.
- 김연하(2019). 어머니의 일-양육 양립에 대한 지각 유형과 양육스트레스, 양육행동, 모-자녀 상호작용. *아동과 권리* 23(4), 627-642.
- 김희영·유효인(2019). 아버지 일-가정 양립 갈등이 아버지 우울과 양육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 어머니 양육스트레스의 매개효과. *학습자중심교과교육학회*, 9(1), 19-40.
- 박정열·신종화·신규리(2015). 직장여성의 여가균형과 결혼만족도의 관계에서 일-가정 갈등의 매개효과 검증. *한국여가레크리에이션학회지*, 39(1), 85-97.
- 박주희(2015). 미취학 자녀를 둔 취업모의 일-가정 역할갈등, 배우자지지 자원이 양육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 *한국가족자원경영학회지*, 19(3), 41-62.
- 백수진(2009). 가부장제와 한국의 저출산 문제: 실비아 월비의 [가부장제 이론]을 토대로. *여성연구논집*, 20, 121-156.
- 서중수(2019). 배우자지지와 결혼만족의 관계에서 일-가족 향상의 조절효과: 기혼남성을 중심으로. *예술인문사회융합멀티미디어논문지*, 609-620.
- 손영미(2015). 한국 기혼여성근로자의 일-가정 양립 관련 가치관이 일-가정 갈등 및 축진에 미치는 영향.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15(7), 203-215.
- 손영빈·최은영(2009). 맞벌이 부부의 가정과 직장 간 역할갈등이 결혼만족도와 직무몰입에 미치는 영향: 개인특성 및 가족과 직장지원의 조절효과 중심. *한국가족관계학회지*, 14(3), 29-30.
- 이병재·정태석(2013). 직장-가정 갈등이 이직의도와 조직몰입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디지털융복합연구*, 11(8), 75-93.
- 이선경·이춘우·김상순(2014). 일-가정 갈등이 이직의도에 미치는 영향-유연근무제 만족도를 중심으로. *인적자원관리연구*, 21(5), 246-262.
- 이승미·구혜령(2013). 자녀양육기 기혼취업여성의 일-가정 상호작용 유형과 유형별 특성. *한국생활과학회지*, 22(4), 575-591.
- 이은희(2000). 일과 가족 갈등의 통합모형: 선행변인, 결과변인과의 관계. *한국심리학회지*:

- 일반, 19(2), 1-42.
- 이진숙·최원석(2012). 기혼 직장여성의 출산계획 경로에 관한 연구-성역할태도, 일가족양립 갈등, 결혼행복감과 출산계획 간의 관계를 중심으로. *사회복지연구*, 43(4), 5.
- 정만해(2016). 공군 조종사의 직장-가정 갈등과 직무만족, 가정생활만족 및 이직의도와의 관계 연구. *인사조직연구*, 24(1), 65-84.
- 정현숙(2004). “결혼전교육프로그램”개발을 위한 기초연구. *한국가정관리학회지*, 22(1), 91-101.
- 조윤주·한준아·김지현(2012). 유아기 자녀를 둔 맞벌이 부부의 삶의 만족도 관련 변인에 관한 연구. *보건사회연구*, 32(3), 33-60.
- 지혜정·김주엽·박상언(2010). 일-생활 균형(Work-Life Balance)과 직무만족 및 이직의도 간의 관계에 관한 실증연구. *한국인적자원개발학회 학술연구발표회 발표논문집*, 2010(12), 97-118.
- 최수찬·우종민·박용섭·김상아(2009). 맞벌이 여부에 따른 직장-가정간 갈등과 직무만족도. *대한직업환경의학학회지*, 21(1), 10-17.
- 통계청(2019). 생활시간조사. <https://www.index.go.kr/unify/idx-info.do?idxCd=4232> 2019년 12월 24일 인출함.
- 통계청(2018). 2018 일 가정 양립지표. http://khttp://kostat.go.kr/portal/korea/kor_nw/1/1/index.board?bmode=read&aSeq=372028 2019년 12월 24일 인출함.
- 하문선(2018). 맞벌이가정 아버지의 일-가족 갈등과 일-가족 향상, 양육스트레스와 자녀와의 상호작용 및 아동의 문제행동의 관계.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18(21), 529-559.
- Chung, H.(2004). Application and revision of the kansas marital satisfaction scale for use of Korean couples. *Psychological Reports*, 95, 1015-1022.
- Clark, S.(2000). Work/Family border theory: A new theory of work/family balance. *Human Relations*, 53(6), 747-770.
- Grzywacz, J., & Marks, N.(2000). Reconceptualizing the work-family interface: An ecological perspective on the correlates of positive and negative spillover between work and family. *Journal of Occupational Health Psychology*, 5(1), 111-126.
- Markman, H., Stanley, S., & Blumberg, S.(1994). *Fighting for your marriage: Positive steps for preventing divorce and preserving a lasting love*. San Francisco, CA: Jossey-Bass Publishers.
- Marshall, M. L., & Barnett, R. C.(1993). Work-family strains and gains among two-earner couples. *Journal of Community Psychology*, 21(1), 64-78.
- OECD(2011). *How's life?: Measuring well-being*. Organis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https://www.oecd-ilibrary.org/economics/how-s-life_9789264121164-en

Schumm, W. R., Nichols, C. W., Schectman, K. L., & Grigsby, C. C.(1983). Characteristic of responses to the kansas marital satisfaction scale by a sample of 84 married mothers. *Psychological Reports* 53, 567-572.

- 논문접수 11월 12일 / 수정본 접수 12월 4일 / 게재 승인 12월 17일
- 교신저자: 김연하, 경희대학교 아동가족학과 부교수, yeonhakim@khu.ac.kr

Abstract

Fathers' Work-Family Balance Clusters and the Associations with Marital Satisfaction, Marital Conflict, and Parenting Stress

Yeon Ha Kim, Yu Zhang and Hongyu Xu

The purpose of the study was to identify clusters of fathers based on their perceived strains and gains regarding combination of work and family roles and to examine differences of their marital satisfaction, marital conflict and parenting stress by the clusters. Clusters of fathers were four groups based on their perception on work-family strains and gains: High Gains, Both High, Both Low, and High Strains. There were significant mean differences of marital satisfaction, marital conflict, and parenting stress among the four clusters. Fathers in High Gains reported the highest marital satisfaction, the lowest marital conflict, and the lowest parenting stress among the four groups. Fathers in High Strains showed the lowest marital satisfaction, the highest marital conflict, and the highest parenting stress. These results indicate that fathers with positive perception on combining work and family roles are more likely to have sound psychological attitudes toward marriage and parenting. Social consensuses on the importance of work-family balance for married men should be enhanced, and political measures should be planned to help fathers maintain their work-family balance.

Keyword: fathers' work-family balance, marital satisfaction, marital conflict, parenting stress